

4 졸업

기고문

경희정신,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

유용철
동문 · 행정학 1986



경희대학교는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장학 정신 아래, '학문과 평화'라는 가치를 품고 '대학다운 대학'을 지향해 왔다. 학원·사상·생활의 민주화라는 교육 이념 역시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학창 시절의 나는 그 말들이 다소 추상적인 구호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시험과 취업, 당장의 고민이 더 절실했던 나에게 그 문장들은 어딘가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여겨졌다.

세월이 흐르고 사회라는 치열한 현장 속에서 여러 선택의 순간을 지나며 비로소 깨달았다. 그 문장들이야말로 내 삶의 방향을 잡아준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빠른 결정을 요구받을 때마다 나는 결국 그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그 질문의 출발점에는 늘 경희에서 배운 가치가 놓여 있었다.

전후 대한민국이 '성장의 압축 혁명'이라 불릴 만큼 도약을 이루었듯, 우리 모교 또한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경희의 성장은 단지 규모의 확장이나 외형의 변화에 머물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축적했는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깊다.

오늘날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인공지능이 질서를 바꾸고,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었으며, 국제 정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요동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지성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지식을 어디에 쓸 것인가. 우리는 어떤 세상을 남길 것인가.' 경희가 말해 온 '학문과 평화'는 그 질문에 대한 단단한 기준이다. 변화가 거셀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나침반과도 같다.

1986년, 나는 이 교정에 첫발을 내디뎠다. 강의실 창밖의 나무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던 시간, 막연하지만 뜨거웠던 다짐들. 졸업

후 공직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오는 동안, 경희에서 배운 가치는 흔들릴 때마다 나를 돌아보게 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학창 시절 받았던 장학금의 고마움을 후배들에게 되돌리고자 그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보냈다. 거창한 결심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감사의 표현이었다. 이후 '경희라이언클럽'을 통해 마음을 이어왔고, 평화의 전당과 선승관 건립에 동참했으며, 최근에는 공과대학 분관 건립 추진에도 동문으로서 뜻을 보태고 있다. 크지 않은 실천이지만, 학교로부터 받은 가르침에 대한 나만의 방식의 응답이라 생각한다. 문화세계를 함께 일구는 동문으로서 자연스럽게 지녀야 할 기분 좋은 책임이라 여긴다.

이제 새로운 길 위에 선 여러분은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하게 된다. 사회는 빠른 답을 요구하고, 경쟁과 효율을 당연한 기준처럼 내세울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나는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배반하지 않고 있는가.'

성공이 언제나 속도의 문제는 아니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 결국 더 멀리 간다. 경희에서 배운 '학문과 평화'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갈등과 분열의 언어가 커질수록 깊이 사유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지금 교정을 걷는 경희사자들의 눈빛 속에는 가능성과 희망이 담겨 있다. 그 모습은 한때 이곳을 거쳐 사회로 나아갔던 우리의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시대는 변해도, 대학 시절에 배우고 느낀 가치가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걸어가길 바란다. 성취를 넘어 의미를 추구하는 삶, 경쟁을 넘어 공존을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교정을 찾았을 때, "나는 나답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경희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선배로서.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변화의 시대 속 미래를 향해'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5일 오전 11시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사진=김가빈 기자)

김가빈 기자 woo289504@khu.ac.kr
유진우 기자 jinwooryu@khu.ac.kr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5일 오전 11시 평화의 전당과 선승관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개식선언 ▲국민의례 ▲졸업식사 ▲학위수여(학사·석사·박사) ▲총장상 및 최우수학술상 수여 ▲졸업생 감사 ▲축하공연 ▲교가제창 ▲폐식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상 총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를 넘어 비상하는 '창조적 실천 지성'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오늘은 대학 졸업이라는 끝과 사회인으로서의 출발이 맞물리는 영광스러운 시간"이라며 "AI 기술의 현실화로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경희에서 학습한 역량을 바탕으로 졸업생들은 창의적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어 김 총장은 "아직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가 보유한 인간적인 인간의 관계와 우정 어린 환대, 협동 정신은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희인은 함께 사유하고 실

천하는 지구적 세계시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장은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낭독하기도 했다. 낭독을 마친 김 총장은 "이 시는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바람의 흔들림이라는 외풍과 비에 적셔지는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젊은 시절의 심리적 방황과 흔들림은 더 단단한 성장을 위한 자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캠 감사 대표 해주석(중국어학 2021) 씨는 "바쁜 일상에서 삶의 무게를 느끼며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우리를 만들었다"며 "대학 생활은 값진 성장통이자 훈장인 고단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열정을 바탕으로 그 과정 또한 즐기는 태도를 잃지 않는다면 어떠한 역경도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서울캠 감사 대표 도혜수(의상학 2020) 씨는 대학 시절 패션 화보 동아리에서의 경험이 잡지사 근무와 해외 경험으로 이어졌다고 밝히며, "도전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선택과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은 성취 이

전에 성실함을 배우는 시간"이라며 "서투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식순이 끝난 후 서울캠 본관 앞과 국제캠 사색의 광장은 기념 사진을 촬영하러 온 졸업생들로 북적였다.

'코로나 학번'인 정기환(기계공학 2020) 씨는 "새내기 시절을 제대로 못 보냈다"면서도 "그래도 즐길 만큼 즐기고 공부할 만큼 공부하고 떠나는 것 같다"며 웃음지었다.

김태훈(사회학 2022) 씨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저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에 도전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진경(일반대학원 음악학 2020) 씨는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 행복했고 후회는 없다"며 "만학도도 끝까지 열심히 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학업에 임했다"고 밝혔다.

조은서(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 2023) 씨는 새내기 시절의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로 "힘든 시절도 견디다면 결국 지나가 있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